우리나라 국내상업은행*의 해외플랜트 수출금융 활성화 방안

정의종 / 플랜트학회 부회장
jjeong@unitel.co.kr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현) (주)에이스이엔씨 대표이사
한국수출보험공사고문(플랜트 부문)
한국플랜트산업협회 F/S 평가위원

1. 현황분석

1.1 계약자 선정 방식의 변화

'00년 이후 플랜트 입찰방식의 뚜렷한 변화 중의 하나는 계약자 선정방식에 있다.

최근에는 소수의 자격심사(P/Q)를 거친 업체들에게만 입찰참여 자격을 주거나 아니면 과거의 경험이나 기업의 규모, 시공경험의 평판 등을 고려하여 단독 혹은 극히 제한된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중동의 경우 GCC 국가들 사이에 오일/가스, 정유 및 석유화학 분야에서 다른 국가보다 먼저 플랜트를 완공하여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제품 선출시전략"에 따라 프로젝트를 조기에 발주하려고 하나 이를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적격 글로벌 업체가 많지 않아 수의계약이 성행하고 있다. 지역별 계약자 선정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중동의 Cost + Fee 방식은 완공시기를 앞당길 때 흔히 쓰이는 발주방식이다. 즉, 일반 턴키발주방식의 경우 PMC (Project Management Company: 프로젝트 관리회사)가 프로젝트 초기부터 관여하여 라이센서 선정, 입찰용 기본설계, ITB작성, 입

<표 1> 지역별 계약자 선정방식의 특징

지 역	변화	특징
1) 중동	-공개경쟁입찰에서 제한 경쟁입찰 혹은, -공개경쟁입찰에서 수의 계약	- P/Q 입찰후 본입찰 - Cost+Fee조건의 수의계약 증가
2) 동/서남아시아	-공개경쟁입찰에서 제한 경쟁입찰	- 라이센서(Licensor) 승인 EPC 업체에 의한 제한입찰 (석유화학플랜트 증설활발)
3) 아프리카	-공개경쟁입찰에서 제한 경쟁입찰	- P/Q 입찰후 본입찰 진행
4) 기타지역 (특히, 중앙아시아)	-공개경쟁입찰에서 수의 계약	-지분참여, 프로젝트 파인낸싱 (P/F), Off-take, 등 요구 조건으로 수의계약

(*) 국내상업은행이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국제상업은행 즉, BNP Paribas, Societe Generale, Standard Chartered 등과 국내 ECA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나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제외한 민간상업은행을 말한다.

찰, TBA (Technical Bid Analysis), CBA (Commercial Bid Analysis), 최종 계약자 선정 등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구상에서 계약자 선정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통상인 반면 Cost + Fee의 경우 설계를 진행하면서 계약자에게 공사착수 지시를 할 수 있어 사업공기가 짧아져 프로젝트 총투자금액(Total Investment Cost)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중동국가들은 이 방법으로 계약을 전환하기 시작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 전체공사비가 경쟁입찰보다 늘어나는 것이 상례이다.

중동과는 또 다른 발주 특징을 보이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경우 '80년 말까지 구 소련의 지역특화 중화학공업시설 육성전략에 따라 생산시설이 건설되었기 때문에 각국들은 '90년 체제전환 이후 프로젝트의 독자수행능력 부족과 더불어 생산제품의 해외 마케팅 및 운영기술의 낙후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지분투자와 Off-take를 우선으로 요구하는 프로젝트가 많다.

따라서 우리 EPC 업체들은 이러한 지역별 발주방식이나 요구사항들을 고려한 차별화된 수주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최근 계약자 선정방식의 변화에 따라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부터 잠재 사업주와 상시 접촉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1.2 금융조달 주체의 변화

'00년 이후 발주처의 금융조달 방식도 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특징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동은 한동안 Sovereign finance 금융조달의 경우 발주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지급보증을 하였으나 이제는 완전히 발주처 자체조달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세계 금융시장의 글로벌화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고유가로 인해 넘쳐나는 재정으로 발주처 자체의 자금조달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조달금리도 미국이나 유럽의 톱클래스 국제상업은행보다 낮아 직접조달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동/서남아시아의 경우 산유국을 중심으로 발주처의 자금조달이 국제금융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만성적인 투자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발전 및 가스처리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경우 파이낸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아프리카의 경우 과거 발주자가 직접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중앙정부의 지급보증에 의한 파이낸싱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구가 많아지고 이는데 그 이유는 한정된 원유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 욕구해소를 위한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1.3 우리기업의 수출금융 조달분석

해외플랜트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대형건설사를 대상으로 '01년부터 '05년까지 수행한 대표적 프로젝트의 수출금융 조달 행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보증

<표 2> 지역별 금융조달 방식의 특징

지 역	변화	비 고
1) 중동	-정부 및 중앙은행의 지급 보증하는 금융조달 방식에서 발주자 조달	- 오일머니에 의한 자체 재원 확보
2) 동/서남아시아	-발주자 직접조달 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조달방식을 달리 함
3) 아프리카	-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조달	- 해외 조달 금융에 의존
4) 기타지역 (중앙아시아 포함)	-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조달	- 금융, 건설, 마케팅, 소요 자금 등을 참여자에게 요구

자료: 한국외환연구원, 수출금융 설문조사, 2006.6

해외 프로젝트 사업주에서 요구하는 Bid Bond, Advance Payment Bond, Performance Bond, Warranty Bond 등 각종 보증서 발급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을 이용한 건수가 총 32건의 프로젝트 중 16건을 차지하여 전체의 50%를 점하고 있다. 즉, 한국수출입은행이 우리 EPC 기업들의 최대 보증서 발급 소스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국제상업은행이 단독으로 채권을 제공한 경우가 4건으로 전체의 12.5%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수출입은행과 협조금융을 하는 5건의 15.6%를 합하면 총 28.1% 정도를 차지하여 4건 12.5%를 실적을 보이고 있는 국내상업은행을 앞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한국수출입은행, 국제상업은행 및 국내상업은행이 협조 금융을 하는 경우도 3건으로 9.4%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국내 EPC 기업들이 보증서 소스를 결정할 때 보증요율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어 본드 발급자격조건에 대한 해외발주처의 조건이나 혹은 발주처의 행정편의에 따른 추천 등이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roject Developer로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종합상사의 경우는 다양한 본드 소스를 갖고 있어 한국수출입은행 한 곳만을 통한 본드발급이 총 25건 중 7건으로 28% 밖에 차지하지 못하여 EPC 기업의 경우 50%보다 훨씬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종합상사의 경우는 한국수출입은행, 국제상업은행 및 국내상업은행과 협조금융을 통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플랜트 EPC 기업보다 앞선 정보력과 금융조달능력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증서 발급시 국내 EPC 기업은 대상 프로젝트

<표 3> 국내 EPC기업의 보증서 조달소스

구 분	건 수	비 율(%)
• 한국수출입은행	16	50.0
• 한국수출입은행+국제상업은행	5	15.6
• 국제상업은행	4	12.5
• 국내상업은행	4	12.5
• 한국수출입은행+국제상업은행+국내상업은행	3	9.4
합 계	32	100

자료: 한국외환연구원, 수출금융 설문조사, 2006.6

<표 4> 우리기업들의 보증서 발급 시 고려요소

구 분	기업 1	기업 2	기업 3	상사 1	상사 2
• 저렴한 본드 수수료	2	1	1	1	2
• 본드발급 시 자격요건에 대한 발주처의 조건제세 또는 추천	4	2	–	3	2
• 프로젝트 정보의 사전 제공과 같은 비용외적인 서비스	3	4	–	4	3
• 금융조달의 편의성	1	3	–	2	4
• 본드 발급자의 국제적 명성	–	5	–	–	–

자료: 한국외환연구원, 수출금융 설문조사, 2006.6
(주) 응답기업들의 숫자는 중요도 순을 나타낸 것 임.

전체의 75%, 종합상사의 경우 92%가 한국수출입은행이 직. 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어 국내상업은행은 향후 보증서 발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과의 긴밀한 협조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하겠다.

(2) 대출

국내 EPC 기업의 대출소스는 대상 프로젝트 37건 중에 13건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전체의 35.2%를 점하고 있으며 국제상업은행으로 부터의 자금조달도 10건으로 27.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국내상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국내상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 및 국제상업은행의 협조융자가 뒤를 잇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국내상업은행의 대출이 전체의 23건으로 약 62.2%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국내상업은행과 국제상업은행의 협조융자인 5.4%를 합하면 67.6%에 달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표 5> 국내 종합상사의 보증서 조달소스

구 분	건 수	비 율(%)
• 한국수출입은행+국제상업은행+국내상업은행	10	40
• 한국수출입은행	7	28
• 한국수출입은행+국제상업은행	6	24
• 국제상업은행	2	8
합 계	25	100

자료: 한국외환연구원, 수출금융 설문조사, 2006.6

<표 6> 국내 플랜트 EPC기업의 대출소스

구 분	건 수	비 율(%)
• 한국수출입은행	13	35.2
• 국제상업은행	10	27.0
• 국내상업은행	7	18.9
• 한국수출입은행+국내상업은행	3	8.1
• 한국수출입은행+국제상업은행	2	5.4
• 국내상업은행+국제상업은행	2	5.4
합 계	37	100.0

자료: 한국외환연구원, 수출금융 설문조사, 2006.6

<표 7> 국내 종합상사의 대출소스

구 분	건 수	비 율(%)
• 한국수출입은행	12	100.0
• 국제상업은행	–	–
• 국내상업은행	–	–
• 한국수출입은행+국내상업은행	–	–
• 한국수출입은행+국제상업은행	–	–
• 국내상업은행+국제상업은행	–	–
합 계	12	100.0

자료: 한국외환연구원, 수출금융 설문조사, 2006.6

차지하는 대출이 국제상업은행보다 크게 된다.

특이하게 종합상사의 경우 조사대상 프로젝트 12건 모두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1.4 우리기업의 '05년 수주 플랜트 금융구조 분석

'05년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수주한 158억 달러 중 확인된 128 억 달러에 대한 사업주의 금융조달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출입은행 단독 대출

순수하게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금융이 제공된 프로젝트가 2건이 있는데 하나는 LG화학의 중국현지법인에서 발주한 VCM/EDC 프로젝트로 이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의 LG화학 기업신용으로 금융을 제공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삼성엔지니어링이 멕시코 Minatitlan 프로젝트로 구매자

<표 8> '05년 수주 프로젝트의 사업주 자금조달

자금원	건수	금액(U$ 1,000)	비율
• 한국수출입은행	2	186,200	1.5
• 한국수출입은행+국제상업은행	7	3,361,609	26.2
• 국제상업은행	11	2,277,176	17.8
• 자체자금	75	6,990,015	54.5
합 계	95	12,815,000	100.0

자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내부조사, 2006.8

<표 9> '05년 한국수출입은행 단독 금융제공 프로젝트

업체명(건수)	프로젝트(U$ 1,000)	계약액
• GS건설	중국 VCM/EDC	32,200
• 삼성엔지니어링	멕시코 Minatitlan #6 Refinery	154,000
합 계(2)		186,200

<표 10> '05년 한국수출입은행과 국제상업은행의 협조융자 프로젝트

업체명(건수)	프로젝트	계약액 (U$ 1,000)	비고
• 두산중공업	사우디 Shuaibah IWPP	848,700	한국수출입은행+SC+우리은행
• GS건설	중국 여동 방향족	136,255	한국수출입은행+중국농업은행
• 대우조선	싱가폴 Frigstad Offshore Drilling	472,000	한국수출입은행+국제상업
• 대우조선	나이지리아 AKPO FPSO	578,000	한국수출입은행+국제상업
• 대우건설	예멘 LNG Tank (대우 수주분)	55,043	한국수출입은행(5억 불)+ 국제상업은행
• 현대중공업	나이지리아 AKPO FPSO	704,205	한국수출입은행+국제상업
• 현대건설	이란 올레핀 11차	567,406	한국수출입은행+도이치뱅크 (주간사)+헤르메스
합 계(7)		3,361,609	

신용에 의한 금융제공이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단독 대출은 건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금액 또한 전체의 1.5%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2) 한국수출입은행과 국제상업은행의 협조융자

한국수출입은행과 국제상업은행과의 협조융자에 의한 융자건수는 7건이고 금액기준으로는 26.2%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두산중공업이 사우디 수전력청으로부터 수주한 Shuaibah IWPP 공사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전체 컨소시엄 중에 가장 큰 금액인 미화 455 백만 달러, 그리고 나머지 Islamic Fund 및 기타 국제상업은행들이 협조융자 하였다. 이란의 경우, 미국의 무역제재로 오일머니가 충분하지 않아 한국 업체 발주 프로젝트는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주로 요청 하였다.

두산중공업의 사우디 IWPP 프로젝트의 경우 우리은행이 유일하게 신디케이션 participating bank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주간사 은행인 Standard Charter (SC)측의 지분 중에 미화 40 백만 달러 상당의 인수에 따른 것이다.

(3) 국제상업은행 대출

국제상업은행의 대출에 의한 프로젝트 수주금액이 미화 2,277 백만 달러에 이르고 건수도 총 11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오래 전부터

<표 11> '05년 국제상업은행 금융제공 프로젝트

업체명(건수)	프로젝트	계약액 (U$ 1,000)	비고
• 대우건설	카타르 Laffan Refinery	265,640	국제상업은행
• 대우건설	카타르 Q-Chem II Ethylene Derivative	385,300	US-EXIM
• 삼성중공업	노르웨이 원유시추설비	465,000	국제상업은행
• GS건설	카타르 Laffan Refinery	403,070	국제상업은행
• GS건설	태국 #2 Aromatic	236,000	태국은행
• 두산중공업	독일 지멘스 Al Ezzel HRSG	27,828	국제상업은행
• 두산중공업	바레인 지멘스 Al Ezzel HRSG	27,760	국제상업은행
• SK건설	태국 #2 Aromatic	414,233	태국은행
• 대경기계기술	카타르 Q-Gas 3&4 Onshore	25,660	국제상업은행
• 대경기계기술	카타르 Q-Gas II	24,692	국제상업은행
• 현대건설	이라크 알 무사이브 #1 발전소 개보수	1,993	UNDP원조자금(일본)
합 계(11)		2,277,176	

<표 12> '05년 사업주 자체자금 프로젝트

업체명(건수)	프로젝트	계약액 (U$1,00)	비고
• 대우건설 외(75)	나이지리아 LNG Train #6외	6,990,015	자체자금

중동에 진출하여 사업주와 긴밀한 금융거래 관계를 맺고 있어 초기 프로젝트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획득하고 이들에게 파이낸싱 스킴을 제공하면서 금융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공사의 대부분을 독식하고 있다.

(4) 자체자금

분석 대상 프로젝트 중 많은 프로젝트가 발주처의 자체자금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는 정보의 접근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나 발주처에서 기업금융으로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제상업은행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체자금 대부분은 국제상업은행이 관여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5 '06년 상반기 프로젝트 분석

'06년 상반기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 대출은 LG상사에서 수주한 연산 200,000톤의 벤젠과 800,000톤의 파라자이렌을 생산하는 오만의 방향족 프로젝트 이다.

본 프로젝트는 특수목적회사 (SPC)에 신용대출과 아울러 국내 지분투자회사인 LG 상사에 해외투자금 융자를 겸한 대규모 투자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주축이 되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성사시킨 건 이다.

1.6 국내금융기관의 해외 프로젝트 종합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금융기관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다음은 '05 및 '06년 국내금융기관의 해외 프로젝트 금융 참여현황이다.

- 한국산업은행(13백만 불) : 오만 방향족생산 플랜트(12억불, '06년)에 한국수출입은행(5억불), 국제상업은행등과(주간사 : HSBC)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
- 우리은행(4천만 불) : 사우디 Shuaibah 민자 담수발전 플랜트(849백만 불, '05년)에 한국수출입은행(5억불), 국제상업은행등과(주간사 : Standard Chartered)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
- 신한은행 : 카자흐스탄 동일 하이빌 아스타나 주상복합건물(328백만 불, '05년)에 사업자금 지원.
- SC제일은행 : 터키 이스탄불 경전철 프로젝트 ('06년)에 수출자금 지원.

1.7 시사점

우리기업이 '05년에 수주한 프로젝트 중 상당부분이 국제상업은행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상기한 **표 8**에서 알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국제상업은행의 공조가 7건으로 수주금액이 미화 3,362 백만 달러이고 국내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국제상업은행에 의한 건수가 11건, 수주금액이 미화 2,277 백만 달러로 이 두 경우를 합치면 금액기준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에서 자체자금으로 분류된 대부분이 국제상업은행에 의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

<표 13> '06년 상반기 한국수출입은행 금융제공 프로젝트

업체명(건수)	프로젝트	계약액 (U$1,000)	비고
• 포스코건설	이란 SAMANGAN 미니밀	318,000	한국수출입은행
• LG상사	오만 방향족생산플랜트	1,210,000	한국수출입은행(5억불)+산업은행 외 20여개 국제상업은행 참여(각각40 백만불)
• 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 Tasnee Ethylene	860,000	한국수출입은행(2억불)+국제상업은행
합 계(3)		2,388,000	

하면 우리 EPC 기업이 '05년 수주한 프로젝트의 98.5% 정도가 국제상업은행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중동지역에서는 고유가로 재정이 풍부해져 자체 자금 조달이 ECA보다 저렴하여, 발주처가 직접 현지은행, 국제상업은행 등을 통하여 자금 조달하는 경우가 일반화되고 있다.

2. 문제점 분석

우리 수출금융의 문제점을 살피기 위하여 금융의 공급자, 소구권의 행사여부 및 금융의 종류에 따라 금융의 공급측면인 우리나라 ECA기관, 국제상업금융기관으로, BNP Paribas, Societe Generale, Standard Chartered, 그리고 국내상업은행 등의 금융역무범위를 정리하면 아래 **표 14**와 같다.

소구권 여부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업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금융 (Corporate financing)과 이와는 달리 기업의 신용과는 관련 없이 대출금 회수를 전적으로 프로젝트의 미래현금흐름에 의존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으로 분류하면 국내상업은행들은 주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금융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국제상업은행들은 외국정부는 물론 모든 플랜트 수주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국내 ECA 기관들과 협조융자를 통하여 기업금융은 물론이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국제금융기관과 비교하면 국내상업은행들은 국내기업이 수주한 해외프로젝트 금융에 한국수출입은행이나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프로젝트 정보력 부족,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 열세 및 국제경험 미비에서 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2.1 국내상업은행의 경쟁력

국내상업은행과 국제상업은행과의 경쟁력 비교를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SG, BNP, 및 SC 등에게 설문을 한 결과 최우수 국제상업은행을 10점으로 하였을 경우 국내상업은행들은 해외 프로젝트의 경험(2.2점) 및 국제은행 및 해외 발주처간의 네트웍(2.2)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국내상업은행들은 정보력과 전문지식 분야에서도 국제상업은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

<표 14> 금융제공자들의 역무범위

구 분	소구권 행사				비 고
	기업(Corporate)			프로젝트(Project)	
	외국정부	외국기업	국내기업		
• 대 출	A, C	A, C	A, C, D	A, C,	
• 보 증	A, (C)	A, (C)	A, (C), D	A, (C)	(C)는 국제금융기관들이 직접 혹은 한국수출입은행 채무보증 하에서 기업금융 및 프로젝트 금융에 참여
• 보 험	B, (C)	B, (C)	B, (C)	B, (C)	(C)는 국제금융기관들이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보험 하에서 기업금융 및 프로젝트 금융에 참여

A: KEXIM,(한국수출입은행), B: KEIC (한국수출보험공사), C:국제금융기관 (BNP Paribas, Societe Generale, Standard Chartered,등), D:국내상업은행)

아 금융허브정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국내상업은행들이 국제상업은행과 비교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취약한 금리 경쟁력인데 이는 조달금리가 국제상업은행들보다 높기 때문이다. 조달금리 부문에서 경쟁력이 다른 분야보다 높은 6.0으로 나타난 이유는 대내적으로 국내상업은행들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상승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가 상승추세에 있어 조달금리가 점차 낮아지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2.2 분야별 문제점

(1) 국내상업은행이 국내기업에게 대출/보증하는 경우

조달금리 면에서 국제상업은행이 국내상업은행보다 다소 유리한 면은 있으나 국내기업과 국내상업은행 간에 유지해온 오래된 관계로 인하여 기업정보에 밝은 국내기업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경우 국내상업은행은 대출/보증을 하면서 플랜트 수출금융 용도로 금융지원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신용 베이스로 금융지원 하는 것이다. 즉, 은행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수주한 특정 프로젝트에서 국내 수출기업이 정상적인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국내기업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2) 국내상업은행이 외국기업/외국정부를 차주(또는 보증인)로 대출/보증하는 경우

플랜트의 경우 통상 대출기간이 장기인데, 장기대출을 하면서 금리수준을 국제상업은행에 맞출 수 없다. 즉, 국내상업은행의 조달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높게 되어 역마진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오만 석유공사가 발주하는 석유화학프로젝트에 대해 Citibank와 한국의 상업은행이 금융경쟁을 한다고 할 때, Citibank의 자금조달비용이 국내상업은행의 자금조달비용보다는 훨씬 낮은 것은 분명한 것이고 이에 따라 Citibank는 보다 경쟁력 있는 금리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최근에는 몇몇 국내상업은행이 향상된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금조달 금리가 낮아지면서 국제 플랜트시장에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국내상업은행은 발주자와의 거래경험, 프로젝트 구성능력, 플랜트 수출금융 관행 등에 지식이 없으므로, 우선은 전략시장을 정하고 Participating 수준 (즉, 대형 국제상업은행이 대출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참여)에 참여하면서 관련 노하우를 익혀야 한다. Mandated lead arranger, Co-arranger, Arranger 등이 되려면 대출을 위한 자금여력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분석능력, 사업성

<표 15> 국내상업은행의 국제경쟁력 비교

구 분	정보력	전문지식	경험	조달금리	네트웍	기타
• 국내 ECA 1	1	2	0	7	1	–
• 국내 ECA 2	4	5	2	5	2	5
• 국제상업은행 1	4	4	4	6	4	5
• 국제상업은행 2	5	5	3	5	3	3
• 국제상업은행 3	5	6	2	7	1	–
합 계	19	22	11	30	11	13
평 균	3.8	4.4	2.2	6.0	2.2	2.6

(주) 분야별 최우수 국제상업은행의 경쟁력을 10으로 보았을 경우 국내상업은행의 점수임

분석능력, 기술타당성 분석능력, 법률심사능력, 프로젝트 계좌/현금 관리능력 등 다양한 능력이 필요한데, 국내상업은행의 이러한 능력은 아주 낮은 단계에 있다.

한국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한국에 있는 은행이 잘 아는 것처럼, 외국에 있는 발주자에 대해서는 그 곳에 진출해 있거나 영업을 하고 있는 은행이 제일 잘 알고 있다. 물론 국내상업은행이 해외에 몇몇 지점 또는 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지 교민이나 주재 한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송금영업과 같은 평이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네트웍과 조직력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금융을 수행할 능력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 국내상업은행은 시장 환경이 검증된 (따라서 국제상업은행과의 경쟁이 치열한) 중동지역 등에서 거래에 참여하지 못하고 대신 러시아, 중국 등과 같은 사업환경이 어려운 곳으로 진출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을 하여야 할 문제이다.

자금조달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해외 플랜트수출금융의 경우 보통 10년 이상 (건설/인출기간 2~3년 및 상환기간 8년 이상)의 장기대출로서 대부분의 경우 6개월 변동금리로 이자지급이 이루어지는 바, 국제상업은행의 경우 장기차입(6개월 변동금리 부)과 단기차입을 적절히 조합하여 최적의 장단기 채권/채무비율을 유지하지만, 국내상업은행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차입이 사실상 힘들고 또한 차입금리 (특히 장기)가 국제금융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요구되는 수익성 (Basel 2에 의한 RWROC, 즉 Risk Weighted Return On Capital)을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일부 외국정부 및 해당 국가 공기업의 차입금리가 국내 금융기관보다 우량하여 차주사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역마진이 발생하여 대출취급이 어렵다. 또한 리스크 관리 측면을 살펴보면, 해외 플랜트수출금융은 대부분의 경우 국가신용도가 낮은 개발도상국의 정부 또는 국영/민간기업(경우에 따라 정부지급보증 부)이 차입자가 되기 때문에 차입자의 신용분석 및 대출 이후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현지에서 지점을 운영하며 현지사정에 능통해야 함은 필수이다. 특히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경우, 현지정부 및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보전, 행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영업망이 절실하나 국내상업은행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 이외에도 국내상업은행이 해외기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기업금융을 하기 어려운 이유를 다음과 같다.

- 해외프로젝트 Track record가 취약하여 발주자, 스폰서 등으로부터 공동작업에 대한 신뢰성을 얻기가 쉽지 않고 및 금융 편의성 등의 제공에도 어려움.
- 외국정부 및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능력이 미약함. 기존 거래관계가 전무하여 관련 정보(특히 재무관련)가 부족함. 또한 회계기준이 다른 관계로 재무 분석 등 기본적인 심사가 어려움.
- 국내상업은행 입장에서 플랜트 수요가(차주)와 기존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의 신규거래 추진이 어려움.
- 혹시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건설 · 운영 기간 동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네트웍 부재로 여신 부실화 가능성 있음. 더욱이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회수협상 등에서 현실적 애로가 예상됨.

3. 정책적 지원방안

3.1 국내 ECA들과 국내상업은행들과의 공조체제 구축

〈표 16〉 국내상업은행들의 해외수출금융 활성화 방안

취약점	국내 ECA	국제상업 1	국제상업 2	국제상업 3
• 해외프로젝트 정보입수를 위하여 국내 컨트렉터들과 정보교류	4	–	4	2
• 국내 ECA기관과 공조체제 구축	2	5	3	–
• 국제상업금융기관과 전략적 제휴	1	1	1	1
• 한국투자공사(KIC)의 주도로 해외 플랜트 펀드 조성	8	–	6	–
• 경쟁력 있는 저금리 조달을 위하여 국내 외환보유고를 이용한SWAP	7	–	5	–
• EDCF 지원확대를 통한 사업기회 확대	9	–	9	4
• 해외 금융전문가 영입 및 양성	3	3	2	3
• 플랜트 금융지원센터 설립	5	2	7	–
• 해외발주처 초청 시 국내상업은행 IR	6	4	8	–

자료: 한국외환연구원, 수출금융 설문조사, 2006.6
(주1) 국제상업은행의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지점이며 1, 2, 및 3 등을 무기명으로 표시하였음
(주2) 설문응답 난의 수자는 중요도 수임

한국수출입은행/한국수출보험공사와 국내상업은행의 공조체제 구축은 항시 거론되었던 활성화 방안 중에 하나이다. 이 방안의 골자는 국내 ECA 기관들이 국제상업은행들과 협조융자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내상업은행과도 이러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국내상업은행이 해외 플랜트 수출금융의 한 축을 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내상업은행이 해외 프로젝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프로젝트들을 발굴하고 한국수출입은행/한국수출보험공사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야 한다.

3.2 KIC가 주축이 되어 해외 플랜트 관련 펀드 조성

현재 우리정부는 외환보유고의 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투자공사 (Korea Investment Corp.)를 설립하여 해외 금융자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자금의 일부를 해외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 가칭 “해외 프로젝트 펀드”에 투자하여 국내상업은행의 해외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조성 하여야 한다.

국내상업은행의 가장 취약점은 조달금리가 국제상업은행보다 높은 것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투자공사의 장기, 저리 자금을 주축으로 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해외프로젝트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KIC의 경우 현재 약 200억 불 정도의 규모로 투자운영자금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투자대상은 미 재무성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현재 달러화에 대한 변동성의 심화와 장기적인 달러 약세화 등에 따라 미국 채권 이외의 실물자산으로 그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KIC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싱가폴투자청도 현재 안전 금융자산 뿐만 아니라 해외 부동산에도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KIC도 실물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겠다. 따라서 KIC가 대상별 투자자금을 할당할 때, 그 중 한 분야를 해외 프로젝트를 위한 펀드에 배당되도록 정책적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3.3 플랜트 전문 금융인력 양성지원

산업자원부에서 '04년 부족한 플랜트산업의 인

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모 대학을 지정하여 인력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업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당초 계획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플랜트 전문금융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정부가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05년 6월 대통령 주제 제1차 금융허브위원회에서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키로 한 뒤에 1년 만에 '06.6.15일 한국금융연구원 내에 "금융인력 네트워크 센터"가 개설되었고 현재 운영에 들어간 금융전문대학원의 경우 자산운영, 파생금융상품, 리스크관리 등과 같은 금융자산분야에 치중하고 있으나 해외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내용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별도의 해외 프로젝트 금융전공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즉, 여기에 플랜트 금융 전문커리큘럼을 개설하여 플랜트 금융 전문 주니어 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